



말레팔라, 말레이시아에 취하다.

11월판 중간정리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볶

1.20

바
쿠
테

30.55

스
윗
p
o
r
k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1.11월 영업 일정

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2. 11월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3.베트니홈의 활동들

4.파워 인터뷰

- (1)시바
- (2)필로미나
- (3)아즈미
- (4)마수미
- (5)찬드라
- (6)제이싱

5. 베트니홈 떠나면서

6.중간평가

7.비자트립-싱가포르-

1.11월 영업 일정

차림표_전체 스케줄 달력

나
시
고
랭

5.50

로
티
봄

1.20

골
뱅
이

30.55

홍
합
탕

20.00

나
시
르
막

6.00

원
탄
미

7.8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아니타 선생 언니 약혼식 구경
6 하리 라야 하지 - 오픈 하우스 초대	7	8	9	10	11	12
13 조가톤 참가	14	15 Korea Food Party!!	16 베다니 홈 안녕 ㅠ.ㅠ	17 안녕 KL!ㅋ	18 중간평가	19
20 Treasure Hunter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베다니 홈 캠프 출발			

11월, 우리와 함께한 사람_베다니 아이들

18일부로 베다니홈에서의 일정을 마쳤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아쉽기도 하다. 아이들 이름을 되새겨 보지만 다 기억 못한게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된다.

나시코랭
5.50

로티폼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그룹홈

닥쿤

베다니 홈 정원사 보조,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은 슬픈 남자(일이 많아서 -_-). 언제나 청바지와 장화는 그의 패션코드.

남징

사춘기 소년. 가끔은 부담스런 스킨십. 그의 동배에서는 안락함이 느껴진다!!

순이

부끄러움이 많은 근성의 사나이. 마지막 포옹은 잊지 않을게!!

미안해1: 호떡을 좋아하는 그.

라이트 하우스

라우



고팔, 준킷



미안해



라우: 우와 사진이 잘 나왔구나, 끝까지 함께 뛰어줘서 고마워(숙정이의 JOGATHOM 짝지) 수줍은 인사가 매력적인 그. 운동화는 새하얇게~~

고팔 준킷: 나중에 축구 또 같이 하자~(범진)

총페이

파티반



강렬한 눈빛 그러나 미소가 아름다운 그, 베다니 홈 WATCH MAN.

컴퓨터 박사, 장난 꾸러기. 베다니 홈에서 가장 단단한 복근의 소유자



11월,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수찬칭

하이씽

데이비스와 친구

페이링

샤이비엔



워크스킬

수찬칭 : 젠틀남.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내게 문을 열어 준 젠틀남. 난 니가 좋아(희정), 한국 음식을 맛있게 끝까지 먹어줬음. 고마워~

하이씽 : 밥 먹었냐고 물어 준 젠틀남 2. 매일 손만 잡아 끌던 그가 2달 만에 처음 한 이야기는 'MAKAAN?'이었다. 근데 좀 게을러!!

데이비스와 친구 : 둘은 왜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나?! 데이비스의 격한 애정표현을 받아주는 친구.

페이링 : 넌 언제쯤 내 수업에 참여해 줄 꺼니? 수영을 좋아함. 하지만 팔을 어깨죽지에서 스팀!!

샤이비엔 : 명댄서. 콩 같이 생겼음(응응?!), 부끄러

미안... 미안...



시앙

P.G.O

미소가 예쁜 아기. 항상 손을 잡으면 힘 자랑을 하지요~



수영 재활치료를 가장 좋아하는 소녀~

11월,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나 시 고 랭	로 티 롬	바 쿠 테	스 췌 p o r k	나 시 르 막	원 란 미
5.50	1.20	30.5	20.0	6.00	7.80

레벨 1

알톤



귀염둥이 애교만점. 자신만의 언어를 구사하는 남자. 미소가 예뻐! 너의 보보는 너무 설렌다고!!

페이썬



행동대장. 조꼬만 게 성질있다~ 애교쟁이. 질투쟁이. 독점욕 최고. 그래도 예뻐요~

푸스파발리



언니가 너무 예뻐. 너도 예뻐. 다른 학교 가나라 바쁜 아이. 잘 커서 모델이 되어요. 우린 너에게도 애정이 많단다... 페이썬 때매 말 못 했어.. 미안 -_-

지젯



감자머리~ 15도 각도의 얼굴. 너의 귀여움이 영원하길, 목소리 듣기 힘든 아이.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아이.

레벨 2

파딜



파딜: 수영이 좋아, 만나오려고 땡깡까지!

미안..



말레이 춤 너무 좋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 ...

레벨 3A

애교만점. 사진찍기를 좋아해. 얼짱 각도를 알지요.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 감정 기복이 좀 있어요.

좌팡



박박이



미끌거리는 게 싫어. 뜨거운 물도 싫어. 그래도 탕탕볼 함께만 들어줘서 고마워.

포동이

말 따라하기를 좋아해

경식이



경식이를 닮았어!! 머리띠 소녀

'Hi'라고 받아줄 때까지 인사. 네 것만 가지렴~

레벨 3B

팀핑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신비한 눈동자. 웃을 때 너무 예뻐!

미안



인도 바라나시의 모 게스트 하우스 워커 '나또'씨와 닮았다.

미안1



11월, 우리와 함께한 아이들

나시고랭
5.50

로리봄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레벨 4

제이시앙



ABC송, 알파벳의 천재! 넌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어~. 칼라링의 천재.

지잉



슬기 말레이시아 동생. 아이폰 게임의 천재. 모든지 즐겨워요~

진푸



숙정이는 설렸다. 그의 피부... 그리고 반짝이는 금목걸이. 너무너무 과묵해. 달리기를 잘해요...(도망에 뛰어난 재능)

??



정말 스피의 천재 뭐든지 돌릴 수 있어요. 우주쭈쭈~. 파이팅 넘치는 아침 체조.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교감을 함~(희정)

미안



레벨 5

민쯔



팽이 돌리기를 좋아해~ 과묵한 남자. 엄마랑 봉어빵!!

유니



끔 좀 씹으신 거 같아요. '안녕~'을 따라 말해요.

미안



마이콜을 닮았어. 다른 곳을 보며 할 일을 제 할 일을 다 하죠. 칭찬에 약한 남자.

레벨 6

찌엔



YES맨. 항상 고개를 끄덕이는 긍정적인 남자. 한국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평범한 얼굴.

수윤



숙정이의 입술을 왜 빼았을까? '마리'는 그의 이름이 아니야!! 감정기복이 좀 있는 것 같음.

살리후딘



하이파이브. 허우대만 멀쩡한 잔병치레가 많아요. 애들을 잘 챙겨주는 말형.

창린



한국 아줌마 춤의 달인. 털기 대결에서 숙정이를 이긴 털기춤 달인.

준후이



수영수업을 좋아해요~

3. 베트니홈에서의 활동들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7주간 베다니 홈에서 활동했다. 우리의 활동은 크게 수업과 행사참여, 그 외의 식당보조 등의 생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수업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수업 내용은 평소 아이들이 접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미술활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클레이아트와 천연염색, 핸드프린팅과 '딱과'를 활용한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미술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클레이아트는 메모꽃이 만들기와 팽이만들기를 주로 했다. 메모꽃이는 아이들과 동물이나 과일 등의 모양을 만들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찍어 꽃아 나누어주었다. 이 활동은 꽤나 인기 있었는데, 아이들이 클레이도 좋아하지만 폴라로이드 사진을 신기해하며 즐거워했던 것 같다. 팽이는 틀에 모양을 그리고 클레이를 붙여 꾸민 후, 아이들과 팽이를 돌리며 놀았다. 클레이아트 수업을 하며 놀란 것은 아이들이 클레이를 섞어 다른 색을 만들 줄도 알고, 모양을 만들며, 팽이를 돌리며 노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었다.





천연염색은 '딱과'를 기본으로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염료를 활용해 티셔츠를 염색했다. 양파껍질, 당근, 시금치 등의 채소를 주로 이용했고, 실로 묶어 무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도 처음해보는 작업이라 집에서 계속 연습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그릇들이 예쁜 색으로 물들기도 했다. 핸드프린팅은 물감 묻힌 손바닥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종이와 반짝이 풀 등을 이용해 더 예쁘게 꾸미는 작업까지 했다. 나비를 만들었는데, 손에 물감을 묻혀줄 때 간지럽다며 길길거리던 아이들이 너무 귀여웠다.



마지막으로 '딱과'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다. 한국에서 '동아 사이언스'에서 협찬 받아 챙겨간 몇 가지 키트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쉬운 몇 가지만 함께 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역시 '탱탱볼 만들기'였는데,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가루가 엉기는 과정을 매우 신기해했다. 다만,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자꾸만 부서져서 청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햇빛에 나가면 색이 변하는 '비즈 목걸이 만들기'랑 고무줄을 이용한 '되돌아오는 바퀴'등을 만드는 것도 모두가 즐거워했다.





매우 창의적인 수업이라고 선생님들이 입 모아 칭찬했던 게임은 '물고기 잡기'이다. 수영장이나 큰 대야에 물고기 모형을 띄우고, 자석이 달린 낚싯대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낚는 형식의 게임이다. 두 아이 혹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잡는지, 혹은 장애물을 피해 더 빨리 물고기를 옮기는 것으로 이긴 팀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풍선을 추진력 삼아 실을 따라 날아가는 로켓 모형을 만들었다. 이 역시 팀을 나눠 더 멀리 날리는 쪽이 이기는 형식을 취했다. 게임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들에게 룰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선생님들을 진정시키는 일이었다. 어찌나 승부욕들이 강하시던지, 자기반 아이 혹은 자기팀 아이가 꼭 이겨야 한다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거나, 반칙도 서슴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직접 준비해서 진행한 수업은 '한국 음식 만들기' 수업이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그들은 일과 이외의 활동들을 하는데, 이 때 홀에서 요리 수업이 진행된다. 우리는 시간에 '호떡과 수박화채'랑 '수제비'를 함께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호떡은 한국에서 가져간 키트를 이용했고, 수제비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야채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 색을 곱게 내어 만들었다. 아이들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수박과 야채를 썰고, 함께 호떡을 부쳤다. 생각보다 능숙한 손놀림에 깜짝 놀랐다. 우리 주먹밥과 수제비, 수박화채, 샐러드 200명 분을 아침 일찍 준비해서 11월 15일 베다니홈 홀에서 아이들에게 떠나기전 아침식사를 선물 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우리들의 수업은 '화분 만들기'이다. 화분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알아보기 쉬운 화분 단면도를 그려 화분 내부를 설명하고, 그 단면도에 따라 자갈과 모래, 흙을 채웠다. 그런 후에 오이와 방울토마토 중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화분에 심고, 이름표를 붙여 키우는 법까지 알려주었다.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베다니 홈의 일과의 시작은 아침운동이다. 이 시간에 아이들은 우선 정원을 산책한 후, 홀에 모여 15분 내외의 간단한 동작으로 구성된 운동을 한다. 이 운동은 각국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금요일 아침을 맡았다. 한국 가요를 틀고서 태권도와 국민체조, 탈춤 동작을 응용한 매우 간단한 동작을 만들어 함께 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다니 홈에 있는 여러 스포츠 수업들도 함께 했다. 대표적으로 축구와 수영을 들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로 라이트 하우스 친구들이 참여하는 축구 수업은 패스와 슈트 연습은 물론 자기네들끼리 게임을 한다. 물론, 주변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참여하는데, 꽤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온다고 한다. 수영은 어떤 영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에서 노는 수업이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재활의 일부이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냥 놀이의 하나이다. 우리도 풀장에 함께 들어가 그냥 놀았다. 이 외에도 '탁구'와 '배드민턴'을 준비해서 함께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이 모든 운동 경기의 룰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수업 이외의 활동으로 '그룹 홈 텃밭 가꾸기'를 들 수 있다. 우리는 곽승현 단원을 필두로 숙소 옆 그룹 홈에 밭을 일구었다. 오이, 옥수수, 상추, 가지 등을 심어 가꾸었는데, 해와 비가 많은 날씨의 영향인지 쑥쑥 잘 자란다. 아쉽게도 아직 수확해 먹지는 못했지만, 떠나기 직전에 오이가 제법 큰 열매를 맺어 뿌듯했다. 그룹 홈 아이들이 마저 잘 키워주길 바란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주요 활동들이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했듯 우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학교에서 베다니 홈 식구들이 함께 즐기는 Thanks Giving Party와 Deepa-raya Party, 쿠알라룸푸르 등지로 이동해서 체육 활동을 하는 스포츠 축제인 Special Carnival과 Jogathon을 들 수 있다.

Thanks Giving Party는 베다니 홈의 생일 파티이다. 올해는 45번째 생일이었는데, 이날은 선생님과 봉사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모여서 파티를 즐겼다. 우리는 이날 행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체육복 차림으로 갔다가 크게 당황했다. 아이들은 모두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고, 선생님들도 모두 사리를 챙겨 입는 등 제법 격식을 갖춘 옷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복을 챙겨가서 공연 후에는 옷을 갈아입었다. 준비한 공연은 '소녀시대의 GEE'에 'We Love Bethany home'이라는 글을 쓴 작은 현수막도 다는 퍼포먼스도 했는데 반응은 참 조용했다. 그 반응이 그들이 열광하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Deepa-raya Party는 말레이시아 어디에도 없는 베다니 홈만의 축제다. 이는 힌두교도들의 새해 축제인 Deepavali와 이슬람교도들의 명절인 Hariraya가 합쳐진 축제로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이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축제이다.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작은 공연을 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축제를 즐긴다. 우리는 이 파티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공연을 했다. 그리고 이날 처음 바나나 잎에 음식을 담아 손으로 먹었는데, 음식을 손으로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 카레에 젖은 밥은 자꾸 흘러 내려서 도저히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수저는 정말 편리한 도구이다.

스포츠 축제는 우선 10월 8일에 KL에서 있었던 Special Carnival이 있다. 이것은 여러 장애인 학교가 모여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작은 올림픽이었다. 이 날 베다니 홈은 전체 2등을 차지해서 베다니 홈 가족으로서 너무 뿌듯했다. 또 이 날 Wisma Harapan 아이들을 만났는데, 헤어질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도 너무 반가웠다. 정이란 게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 11월 12일에는 Jogathon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외국인과 말레이시아인,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걷고, 달리며 함께 즐기자는 취지의 행사였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메르데카 광장 주변에 마련 된 약 4Km의 코스를 걷고 달렸다.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스포츠 축제에 참여할 때에는 항상 이른 아침에 출발해야 해서 몸은 조금 고되었지만, 함께 땀 흘리며 고생하니 정이 많이 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베다니 홈에서 우리가 한 일은 이 정도이다. 우리의 메인 활동지였고,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기때문에 떠나올 때는 눈물을 보이는 단원도 있었다.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 7주라는 시간이 하루처럼 흘러갔다. 우리 모두 베다니 홈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행복했으니까.

4. 파워 인터뷰

(1) 시바 선생님

나시고랭	로티폼	바쿠테	스윗 pork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 1. 베다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 저는 '시니어 티처' 중 한 사람입니다. 시니어 선생님은 베다니에 저를 포함해 총 7분이 계십니다. 저는 베다니에서 18년을 일했습니다. 시니어 티처는 베다니에서 근무한 기간과 경험, 책임감 그리고 선생님들을 교육시킬만한 자질을 갖춘 선생님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시니어 티처는 베다니에 있는 모든 주니어 티처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 교육은 아이들의 교수법부터 베다니 시스템에 적응하기까지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함께 합니다. 그 밖에 주요 결정 사항들에 대해 선생님들께 알려주기도 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디파라야 행사 때도 굉장히 바쁘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2. 베다니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저는 18년 전에 처음 베다니에 왔습니다. 동생인 마이클이 이곳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장애인 학교라는 점이 저에게 어렵게 다가왔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곳의 가족 같고 친구 같은 분위기와 나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주는 이곳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3. 베다니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 아무래도 매일 마주치는 아이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 교육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아이들이 제 기쁨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에게서 잘 배우고 저를 따라줄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이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최고가 되면 저 역시 최고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 4. 베다니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 제가 어린 아이들을 맡고 있는 클래스에서 일해서 그런지, 학부모님들의 필요 이상의 간섭이 가끔 어려웠습니다. 베다니 홈에서 아이가 교육받는 동안 그 옆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아이에 관한 모든 행동에 된다,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이런 점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아니라 오히려 학부모와 더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있지만 마음과 정신은 아직 일하기에 충분합니다.
- 5. 베다니 홈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제가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준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고 함께 있어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을 "Love place"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곳의 모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일거리라 생각합니다.

(2) 필로미나 인터뷰



1. 베다니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저는 Light house 선생님입니다. 이곳에서 책갈피 만들어 팔기, 컴퓨터 교육과 이에 관련된 업무들, 중고 옷 팔기 등 라이트 하우스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라이트 하우스 학생들 중에서 "다른 일반 직장" 으로 취직한 학생이 있나요?

-> 네. 올해 말콤, 샴, 파티번 이 세 학생이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말콤은 시내에 있는 주유소에 샴 역시 시내에 있는 빵집에 그리고 파티번은 베다니 홈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체크하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또 다른 학생 한명이 일반 상점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점과는 이야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이 학생은 저 혼자서 준비를 시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2. 베다니 홈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8년전에 다른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베다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학교에서 일하게 된 동기는, 그 아이들이 독립적, 자주적으로 살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언젠가 아이를 사회에 홀로 남겨두고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 아이들은 혼자가 될 텐데, 만약 지금부터 혼자 사는 방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보통사람들처럼 혼자 사는 법을 익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 점이 내가 장애인 교육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3. 베다니 홈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 일을 하다보니 아이들의 감정에 나도 많이 동화되는 순간들을 느꼈다. 아이들이 내가 일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게 해줬는데, 특히 그들이 취직을 해서 베다니홈을 떠나거나 그들에게 주어진 코스를 무사히 잘 마쳤을 때 대견했고 많은 보람을 느낀다.

4. 베다니 홈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 라이트 하우스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일반 가정집에 방문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집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일이다.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이 일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하기 싫어했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청소 시킬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켜야 하는 순간이 가장 미안하고 힘들다.

5. 베다니 홈을 한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Bethany is the best."라고 표현하고 싶다. 일단 베다니 홈은 나의 직장이기 때문이다. 베다니 홈은 참 좋은 직장이다. 또한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 좋은 봉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베다니 홈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일해 봤지만 베다니 홈만이 가진 평화로운 분위기와 시스템은 정말 좋다고 말할 수 있다.

(3) 아즈미



1. 얼마나 어떤 역할을 베다니에서 하고 계십니까?
 - 베다니홈의 체육 교사 9년 동안 일하고 있음 2002년 1월 7일부터.
 - 처음부터 베다니에서 학생들에게 액티비티 활동을 가르치고 싶었다. 홀과 잔디밭에서 학생들에게 액티비티를 가르치고 있다. 축구 보체 등의 활동을 학생들이 좋아한다.
2. 베다니에서 일하게 된 동기
 - KLCC에 있는 Burger King에서 4년동안 일을 했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KL에 있는 IT account in cosmoposint college에서 공부를 했었다. 부모님께서 다른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베다니홈을 찾아와 2002년 제이싱과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베다니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금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
3. 베다니에서 일하면서 어려운점
 - 학생들과 클래스를 가질 때 의사소통이 가장 어렵다. 선생님들이 내가 수화로 말하는 것을 바로 학생들에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수업한다. 지금은 몇몇 학생들이 수화를 알아듣고 나 스스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서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4. 베다니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 아이들과 같이 수업할 때 가장 기쁘다. 특히 축구 클래스
 - 그림 그리는걸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려야할 일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 주면 보람을 느낀다.
 - 베다니에서 2005년 5월 선생님들의 날에 첫 상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다.
5. 봉사자들에게 수화 수업을 하게 된 계기
 - 2002년 처음 봉사자를 만났을 때 영어로 필담을 했었다. 그 이후 봉사자들이 나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수화를 배우기를 원했다. 그때부터 봉사자들에게 수화 수업을 시작했다.
6. 라온아띠 1기과 2009년에 처음 만났다. 베다니홈에 데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즈미를 보려고 베다니에 왔다. 그리고 축구수업을 도와주었다. 라온아띠 1기가 KL YMCA에 베다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 그때부터 라온아띠가 베다니홈에 오게 되었다.

(4) 마수미

나시고랭
5.50

로티폼
1.20

바쿠테
30.5

스윗
20.0

나시르막
6.00

원란미
7.80



- 어떤 역할을 얼마나 베다니에서 하고 있습니까?
 - 봉사자로 처음 베다니에와서 1년 9개월동안 체육교사인 아즈미와 액티비티 클래스를 하고 있다.
 - 2년이라는 오랜 시간 일하다보니 역할이 많아졌다. 스포츠교사, 봉사자, 스텝이라는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도울 수 있어서 좋다.
- 베다니에 오게된 동기
 - 대학에서 4년동안 체육교육을 전공했다. 장애아동 교육에 관심이 생겨 1년 더 공부를 하였다. 장애아동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었는데 JICA에서 베다니홈에 스포츠,레크레이션 봉사자 수요가 있는 것을 보고 지원해서 오게 되었다.
- 베다니에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
 - 클래스를 가지면서 학생들의 기술 능력등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선생님들과 함께 느낄 때 가장 기쁘다. 그리고 학생들이 웃을 때도..
- 베다니에서 가장 어려운 점
 - 처음 왔을때 일본교육의 방식과 너무 많이 달라서 이해할 수 없었다. 아즈미가 아무 얘기도 없이 수업에 오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 아무도 아즈미가 왜 오지 않았는지 얘기해주지 않았었다. 지금은 비슷한 일이 생기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데 그 당시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베다니는 좋은 편이다. 다른 학교는 선생님들이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더라.
- 봉사자들에게 하고 싶은말
 - Just enjoy bethany!
 - 베다니에서 되도록 많은 것들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5)찬드라



1. 베다니 홈에서 하시는 일은?

-> 저는 이곳의 간호사입니다. 베다니 홈에서 필요한 어떤 의학적인 필요에 대한 일을 합니다. 또한 그룹홈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제야싱, 쿠와함께 베다니의 주요 일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모든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2년 일을 했고 아마 이 덕분에 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2. 베다니 홈에 오게 된 동기는?

-> 처음엔 이곳에 왔을 땐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 직원으로 초대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 처음 제안하셨기도 하고 당시 베다니 홈 디렉터가 스웨덴으로 가는 바람에 조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베다니 홈에 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휴일에만 볼 수 있었지만 베다니 홈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고 보람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베다니 홈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베다니 홈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서 하는 일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장애 아동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곳 지역사회 사람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만큼 이곳에서 지내는 것은 때론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들이 나를 항상 웃게 만들었고 그 점이 항상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3. 베다니 홈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 아이들이 잘 성장한 모습을 봤을 때나 어떤 것이든 아이 스스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베다니 홈에서 와치맨으로 일하고 있는 파티번은 유아 반에서 공부하다가 KL로 이사 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physio에서 일을 도와주며 스스로 이곳에서 할일을 찾아 지금은 어엿한 베다니 홈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를 보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베다니 홈의 목표는 장애 아동들의 삶을 가능한한 독립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각자마다 가진 잠재능력을 찾아 그것을 고집어 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주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파티번 뿐만 아니라 총페이냐 그 밖의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의 목표를 실현 시켜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4. 베다니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항상 웃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 그렇다. 그것은 베다니 홈의 공기,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베다니 홈에선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그로 인해 더 발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하는 작은 것 하나에도 '뿌다이(천재)~'라며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감을 통해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베다니 홈엔 많은 활동들이 있다. 미술과 체육 요리 무용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 조가톤에서 상을 받아온 아이들은 진심으로 그것에 행복해 했고 더 열심히 체육활동을 하리라고 믿는다.

5. 베다니 홈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 몇 해 전, 한 아이가 죽었을 때 가장 슬펐습니다. 그 아이는 나이도 있었는데 매일 조금씩 알아가다가 죽게 되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애 아동들의 수명은 보통 아이들보다 굉장히 짧고 이렇게 병을 얻거나 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6. 얼마 전 시바 선생님과 인터뷰 하다가 베다니 홈 선생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베다니 홈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들이 있나요?

-> 모든 베다니 홈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 교육 관련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은 시니어 티처의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7.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혹시 찬드라님께선 언제 기독교 신자가 되셨나요?

-> 일단 저희 가족은 전부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독교를 믿는 가정환경에서 자라 왔습니다.

+ 말레이시아엔 기독교 신자가 적다고 들었습니다만?

->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슬림이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베다니 홈에선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조회하는 건 그런 맥락에서 입니다. 신은 우릴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우리는 신에게 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구요.

+ 일부 선생은 무슬림이고 힌두교 인데?

-> 네. 무슬림과 힌두 모두 종교가 다양합니다. 다만 베다니 홈에선 기독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더 많을 뿐이죠. 베다니 홈에선 모든 종교 기념일에 함께 축하하고 의미를 나눕니다. 얼마 전 디파라야가 그랬듯 말이죠.

8. 베다니 자원봉사자들에게 해주고픈 말이나 조언 혹은 충고가 있다면?

-> 저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은 베다니 홈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저는 당신들이 이곳이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진 다양한 재능들과 그것을 나누는 것은 이곳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단지 웃어주고 함께 뛰어놀고 밥을 먹고 하는 등등의 일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것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오는 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베다니 홈엔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다녀가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을까요?

-> 혼란스럽다는 표현보다는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 그리워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정서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떠나간 봉사자들을 그리워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자가 떠났을 때, 당장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아이들이 그 봉사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끔 봉사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스텝들에게 그리워하거나 보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아이들이 진실로 봉사자들을 그리워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떠나고 왔는지를.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한사람 한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 데이빗(승현오빠)은 말은 많이 못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가 가든수업과 수영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열심히 쉬지 않고 물장구를 치며 놀아주는 것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활동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할 일을 정말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이고 아이들 역시 반드시 라온아미를 그리워 할 것입니다.

(6) 제이싱 Mr.Jayashing Interview



Q :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하나?

A : 저는 베다니홈의 Director이다. 1993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으니 19년 정도 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일로 이 것이 나의 주된 일이다. 베다니홈과 커뮤니티 그리고 복지 정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는 기금 모음이다. 50만링깃을 매년 베다니 홈의 운영을 위해 모아야 한다. 수업, 캠프, 급식 등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아야 하기에 베다니 홈을 홍보하고 하는 일들을 보여준다. 셋째는 선생님과 스태프들을 교육하는 일이다. 외부에서 교육을 하러 오기도 하고 스태프들을 외부로 보내서 교육받게도 한다. 넷째는 학생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한다. 다섯째는 베다니가 가야할 방향을 가지는 것이다. 베다니 홈을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밖으로 더 많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

Q : 대부분의 donation은 어디서 오는가??

A : 45%의 기금은 복지자금으로 나온다. 55%는 공공 기부금에서 오는데 대부분은 힌두교 사람들에게서 온다. 베다니 홈을 보고 알게 되는 사람들이 기부한다.

Q : 외국인들도 donation을 하나?

A : 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얻는다.

Q : 베다니 홈으로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A : 나는 원래 일반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을 하던 마지막 6년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업을 듣고 청각장애아동들을 위한 교육을 했었다. 그 때 수화도 배우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수화교육을 하기도 했다. 베다니 홈에 처음 오게 된 것도 베다니 홈 선생님들에게 수화를 교육하는 봉사자로 왔던 것이다. 또한 나는 management community의 멤버가 되어 이 곳의 자금모음을 도왔다.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나에게 이 일을 제안했고 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일하는 것의 가장 큰 만족은 "다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의 삶의 질을 다르게 하고,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도울 수 있다.

또 베다니 홈은 멋진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돕는다. 약물 중독, 에이즈, 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함께 돕는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만족을 준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베다니 홈이다.

Q : 그렇다면 베다니홈의 학생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가?

A : 그렇다. 그러나 베다니 홈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너무 멀다면 그룹 홈(베다니 홈 근처에 집이 너무 먼 학생들끼리 모여 살도록 제공한 집)에서 지낸다. 그렇지만 나는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학생들이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가족들이 학생들에게서 손을 때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을 그들의 아이이고 가족이고 그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50:50 의 도움을 주려고 한다. 가족이 반 베다니가 반이다. 가족들을 베다니 홈이 운영되고 교육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Q : 그렇다면, 베다니 홈의 학생들이 베다니 홈의 교육과정을 다 밟고 나서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직업훈련을 하는 light house에 갈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A : 말레이시아는 거주하며 머물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 아이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일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베다니 홈의 SNU나 Workskill class에서 지낼 수 있다. 낮에는 학교에 왔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Q : 베다니 홈의 교육 목표는?

A : 지금 베다니 홈의 교육 목표는 "독립 교육" 이다.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집에서 커뮤니티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스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엄마를 도와 집안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그들의 부모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를 염려한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그들의 염려도 덜어질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Q: 말레이시아의 교육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들었다. 장애 아동들에 대한 교육에도 변화가 있는가?

A : 말레이시아 정부는 장애 아동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 기관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베다니와 같은 NGO에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 : 말레이시아에서 장애인이 산다는 것은 어떤가?

A : 말레이시아의 법 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100분의 1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 것이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더 많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말레이시아는 여러 문화가 함께 하는 곳인 만큼,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A :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심이 적다. 베다니 홈만 해도 그렇다. 외국인 봉사자들은 많지만 말레이시아인들은 어디 있는가? 가족들도 자신의 아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엔 사람들이 "물질" 더 찾기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 슈퍼마켓에서 일하면 돈을 받지만 봉사를 하면 돈을 받지 못하니깐. 하지만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장애인들이 공동체에서 언제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일반적이지 않는 행동들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인 교육이 있으면 사람들의 인식도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장애인들에게 잘 해주고 친절하다. 하지만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다이다. 존중과 권리에 대해서는 다르다. 활동을 할 때에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Q :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19년 동안 베다니에 몸 담으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A : 학생들을 직장에 보낼 때다. 학생들이 돈을 벌어오고 가족들이 행복해 할 때 보람되다. 또 학생들이 산에 올라 정상에 서 있을 때다. 또 학생들이 세계 스포츠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뛰고 있을 때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함께일 수 있다. 또 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도 행복하다.

Q : 모든 순간이 행복하군요.

A : 몹시 몹시 행복하다. 모든 베다니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에 감사하다. 또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 짧게 짧게 오더라도 학생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독립적이게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밖으로 나갈 자신감도 얻게 된다.

Q : 그렇다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A : 힘든 순간은...모든 베다니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더 이상 베다니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학생 가족이 학생을 그냥 다른 기관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관련 시설에 보내버리거나 그냥 집에 가둬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힘든 경우는, 기금 마련에 도움을 주던 곳에서 지원을 끊는 경우에도 또 다른 기관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

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학생이 죽을 때이다. 많은 학생들이 죽을 때는 봤다. 내 손 안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그룹 홈이 아이가 아파서 전 속력으로 달려 병원으로 데려가 아이를 의사에게 넘겨주는 순간 아이가 죽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베다니의 모든 스태프들은 그 아이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때, 가족들은 울지 않았다. 그룹 홈에서 지내느라, 베다니에서의 시간이 가족들과의 시간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설에 아예 맡겨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Q : 베다니의 봉사자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한다. 베다니에서 봉사하는 시간동안 계속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봉사했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A : 베다니 홈에서 일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어렵다. 그들은 전문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 그들을 도와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된다.

또 장애인들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또 언제나 사람들은 그들에게 "no"를 외치기만 한다. 벌을 주기만 한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봉사자들이 중요하다. 봉사자들을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를 주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해준다. 아이들과 함께 걷고 놀면서 아이들이 나에게 친구가 있다고 느끼고, 아이들과 함께 말하고 만지고 사랑한다고 내 친구라고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 받고 있고 친구가 있고 내가 괜찮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국 봉사자들은 언어가 문제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하면 아이들도 알아 듣는다. 웃고 터치하고 함께 놀고 먹는 모든 것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안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 중요하다.

항상 바쁜 걸 안다. 바쁜 시간을 내주어서 고맙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베다니에 대해서 또 봉사자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답을 찾게 될 것 같다. 지난 7주 동안 베다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

5. 베다니홈을 떠나면서

나시고랭	로티폼	바쿠테	스윗 pork	나시르막	원란미
5.50	1.20	30.5	20.0	6.00	7.80



승현

베다니홈에서의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 이 한달 반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데도 이렇게 짧고. 아쉽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그 시간들을 재미있고 알차게 지냈던 이유가 아닐까? . 아이들과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았고 노는게 좋았고, 수업하는게 좋았고 식당일도ㅋㅋ 앞으로 내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같다. 그러나 항상 지나간 시간들과 마주서면 아쉬운 장면들이 생각나는 것은 어쩔수 없나 보다. 그룹홈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냈던 시간들이 짧은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 나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같이 지내는 자원활동가들과 선생님들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 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 앞으로 과제는 지금 이 아쉬운 장면들을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에 있어서 되풀이 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있을 것 같다.



은지

베다니 홈에서의 시간들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어지간히 속도가 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고민했지만, 중반을 넘어서자 가속도가 붙어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대단한 수업을 한 적도 없고, 무언가 대단한 것을 남겨두지도 못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웃어주고, 손 한번 잡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좋아하던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들은 내 가슴 속에 살짝 담아 놓았다. 아이들과 정이 들었고, 그 집과 정이 들었고, 그 마을과 정이 들었다. 마지막에 썩 맛있지는 않은 밥 한 끼 마저 대접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 캠프 때 가거든 그룹 홈에 승현오빠가 심어 놓은 옥수수 따 먹으러 가야겠다. 애들이 잘 키워 놓았겠지??ㅋㅋㅋㅋㅋㅋ





숙정

베다니 홈은 모든 라온아띠 말레이시아 팀 단원들이라면 가장 좋아하고 또 추억하는 장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에게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장소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선물해 준 것만은 확실하다. 나에게 있어 베다니 활동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초반엔 죽어서 이름을 못 남길 바에야 베다니 홈에라도 내 존재를 확실히 남겨둘 요량으로, 필요한 것을 꼭 해주겠다는 심사로 의욕적이기만 했던 내 모습이다. 두 번째는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해줘야 할 것들, 무엇을 할지, 심지어는 여기서 하는 활동의 의미도 헛갈리면서 들기 시작한 방향과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들이 정리되면서 어떠한 결과든 거기서 아등바등 했던 그 자체로의 의미들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이다. 나는 그동안 베다니 홈에서 소위 성과내지 못한 내가 싫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내 모습 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며 그곳에서 작지만 스스로 할일을 찾아서 했던 혹은 그러한 시도들 그리고 팀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련의 소통의 과정들이 지금 나에게 고스란히 남아 힘이 되고 있다. 베다니 홈은 방향은 각자마다 다를지라도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장소다.



범진

베다니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냐고 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겨두고 왔는지...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었는지 나를 기억하는지 많은 생각이 든다. 한 가지 확실한건 나의 뜨거웠던 순간을 베다니와 함께 보냈다는 것 뿐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쫓기듯 급하게 베다니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떠났던 것이 아쉽다.



희정

베다니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같이 웃고 안고 악수하고 뽀뽀하고 춤추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신나려고 하는데 헤어진다는 것은 정말 슬프다. 7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내가 아이들에게 베다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랬던 시간들,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던 시간들. 그러다 문득 내가 베다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사람들. 베다니를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지키고 있는 제이싱과 찬드라에게서 또 선생님들에게서, 무엇보다 아이들에게서 매일 많은 것을 배웠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는 게 베다니 가족으로서의 도리겠지



6. 중간평가

나시코랭
5.50

로티폼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나시트막
6.00

원란미
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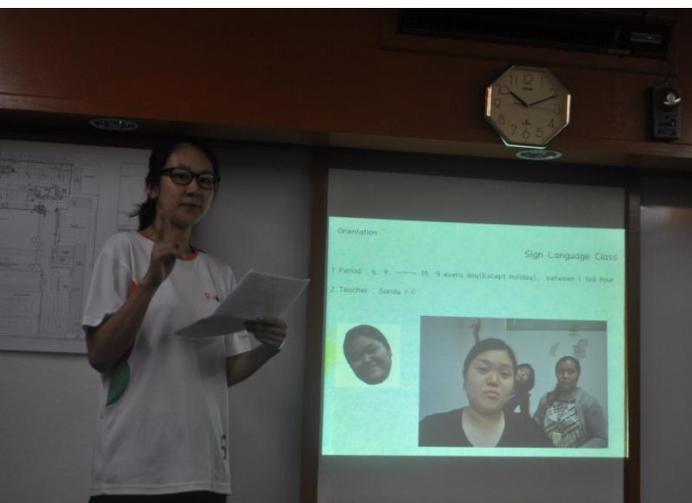
승현: 안 그래도 영어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발표는 영어로 하라 그래서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물론 내가 말한 영어로 말한 시간 중 최고 긴 시간이었고 떨렸던 시간이었다. 발표대본을 번역해 주신 희정, 숙정 단원에게 감사 합니다.



은지: 중간평가가 뭐고,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 영어로 발표 준비를 하란다. 학교에서도 영어 강의는 다 피하고, 영어 발표는 다 도망 다녔는데 여기서 하게 될지는 몰랐다. 하필... 사다리도 잘 못 타서 분량도 제일 많았다. 대충 어떻게 쓰고 나니... 이제 사전에서 찾은 단어들 발음이 안 되어서 혼났다. 아... 활동의 절반을 끝내고, 그 간의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즐거웠지만... 영어로 돌아보기엔 내가 너무 공부를 안했다. 나의 어줍은 영어가 팀의 활동을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다.TTTT



숙정 : 베다니 홈의 마무리와 함께 시작되는 중간평가는 나에게 이래저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영어로 발표를 하고 우리 활동을 보고 드린다는 점에서 많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아나 간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과 중간 평가를 준비하면서 반쯤 걸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생각들 - 스스로 되돌아보기, 처음 새웠던 목표에 대한 점검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 상황들 - 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정말 좋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중간평가가 끝나고 나니 열심히 해보자는 의욕이 마구 솟았다. (물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휴가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결론은 중간평가는 맛있는 밥과 내적 고민 해결 그리고 간사님과의 만남까지 완전 짱 이라는 점이다.^3^





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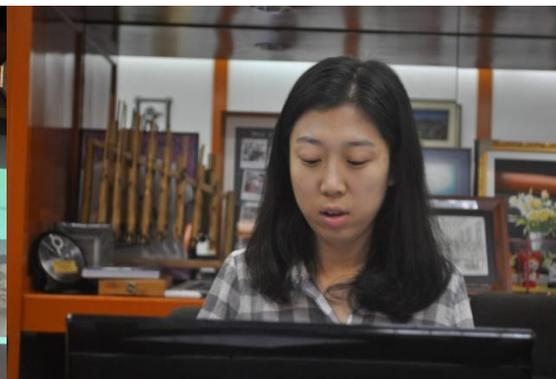
베다니의 활동을 마치고 중간평가라는 분기점이 없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 적절한 순간에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많은 일들을 숨가쁘게 정리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다.



희정



참 타이밍도 적절하게 우리의 주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베다니 홈이 끝나는 시점과 말레이시아에서의 활동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과 중간평가를 하는 시점이 딱 맞아서 정말 돌아보기에 적절했다. 사실 베다니에서의 활동들이 끝나고, 앞으로의 일정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가며 활동을 지속해 가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던 차였는데, 감사님이 와서 또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과제들을 던져주고 가시니 "또 한 번 일어나 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직 과제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상태지만, "자원 활동"이라는 것을 이래저래 배워가는 과정. 흥미진진한 것 같다. 예이!!



7. 비자트립 -싱가포르 2박3일-

나시코랭

5.50

로리콤

1.20

바쿠테

30.5

스윗 pork

20.0

나시트막

6.00

원란미

7.80

22일 우리 말레이시아 팀은 비자 연장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비자 트립을 갔습니다.



은지

비자연장을 위한 여행을 가야한다고 들었을 때, 여기저기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여럿 떠올렸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싱가포르를 본 것은 어렸을 적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뿐이었는데... 그래도 막상 가니까 좋았다. 우선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은 게 처음이라 너무너무 신기했고, 책에서만 보던 요상한 모양의 건물들이 마구 펼쳐져 있는 것도 좋았다. 그리고... 좀 무서웠다. 마리나 만 전체를 공원으로 꾸며놓은 것도 그랬고, 중국인지 동남아인지 헷갈리는 시내 곳곳의 풍경도 그랬다. 발에 체이는 대형 쇼핑몰과 명품을 파는 가게들, 잘 정비된 거리와 엄청 빠른 에스컬레이터. 무엇보다 넓은 캠퍼스에서 대규모 도서관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동아리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들을 보니... '작지만 강하다'라는 말이 싱가포르에 꼭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더 인상적인 여행이었다.



숙정

희정언니와 나는 대중교통 잘 갖춰진 싱가포르에서 참 많이 걸었다. 사실 싱가폴은 시가지를 중심으로 웬만한 지역은 다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작지만 화려한 마을 같다는 느낌이 강했다. 깔끔한 길들과 공공시설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좋아보였다. 심지어는 사람들도 조금도 풀어진 사람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보다는 조금 더 각박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곳은 서울과 같은 도시 그 자체였고 나는 그 느낌이 싫다가도 좋은 모순적인 느낌들을 받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낼 때 보다 배로 비싸진 밥값 때문에 섭섭하긴 했지만 또 다른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희정

건축이 전공인 나에게 싱가포르에 가 볼 기회는 너무나도 황홀하게 느껴졌다.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화려한 싱가포르에서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멋지고 반짝였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느낀 건, 한국은 뭔가 세상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거다. 무튼 비자 연장하러 와서 참 많은 것을 느꼈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님. 근데. 과연 이 도시에 사는 건 행복할까? 웃음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보다 좀 더 바쁜 느낌? 3일이었는데 말레이시아가 그리웠다. 세상에 난 몰랐다 내가 그럴 수 있을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환하게 웃어주며 "사마 사마(you are welcome.)" 라고 해주는 공항 직원이 왜 이렇게 반가웠을까. 남은 두 달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





승현

내가 탄 버스가 싱가포르의 도로를 타고 달리때 처음 느낀 것은 주변 환경이 너무나 깨끗하고 조경이 잘 되어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나무들이 만들어준 그늘이 있어서 말레이시아와 달리 덥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고 수많은 고급 외제차와 고급 빌라 그리고 수많은 중국인들 내가본 싱가포르는 거대한 차이나 타운을 보는 것 같았고 항상 좋은것만 모아서 나둔 것 같은 인상 이었다. 혹시 심시티 게임을 아시는지? 싱가포르는 심시티 게임의 이상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범진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곳, 동남아에서 가장 잘사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다. 직접가보니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더 잘사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 오랜만에 좋은 휴식과 반가운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12월에 돌아온다.